

2024.04.11.(목) 증권사리포트

LG화학

2024년 양극재, 석화 순서로 턴어라운드 진행 중

[\[출처\] 유안타증권 황규원 애널리스트](#)

2024년 1분기 예상 영업이익 2,488억원

2024년 1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11.1조원, 영업이익 2,488억원(영업이익률 2.2%), 지배주주 순이익 1,024억원' 등이다. 영업이익은 전분기 2,474억원과 비슷하게 바닥을 형성하는 가운데, 컨센서스(4/8일) 2,174억원을 소폭 상회할 전망이다. 기초소재 적자 축소와 배터리 판매부진에 따른 감익으로 여전히 부진하지만, 양극재를 포함한 첨단소재는 턴어라운드를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부문별 이익은 '기초소재(화학) △308억원(전분기 △1,170억원), 첨단소재 1,262억원(전분기 530억원), 배터리 1,573억원(전분기 3,382억원)' 등이다.

1분기 양극재, 2분기 석화, 3분기 생명과학 모멘텀

2024년 양극재, 석화, 생명과학 순서로 실적 회복 모멘텀이 자리잡고 있다. 1) 양극재 부문은 1분기 300억원 내외로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LG에너지솔루션(주) 향으로 수직계열화를 강화하면서, 30% 수준의 판매물량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2분기에 더 강해질 전망이다. 2) 기초소재 부문(석화)은 2분기에 흑자전환이 기대된다. 3월부터 강화된 중국의 이구환신(낡은 제품 폐기 후 신제품 구매 시 보조금 지원)으로, LG화학(주)의 주력제품인 ABS(IT 및 자동차 소재)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 3) 2분기 또는 3분기에 생명과학 부문에서 희귀비만 치료제 기술 수출료 선수금(LB54640 임상 2상 진입, 판매처 리듬파마슈티컬스(주)) 1,300억원을 기대할 수 있다.

2024년 자산 매각 계획은 진행 중

2024년 중요한 재무적 이슈는 주력사업 유동화이다. 1) 석화 자산 15조원 가운데 일부를 자회사로 물적분할한 후, 소수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다. 잘 진행되면 2 ~ 3조원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2) LG에너지솔루션(주) 지분 82% 가운데 2% 내외를 매각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글로벌 최저한세(minimum tax)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연말까지 지분율을 80% 이하로 낮춰야 한다. 2가지 매각은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데, 성공 시 현금유입으로 주가 재평가로 이어질 것이다.

Quarterly earning Forecasts (억원, %)

	1Q24E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컨센서스	컨센서스대비
매출액	111,821	-22.8	-12.1	129,032	-13.3
영업이익	2,488	-68.6	0.5	2,174	14.4
세전계속사업이익	1,596	-82.6	-20.9	1,169	36.5
지배순이익	1,024	-78.4	흑전	1,166	-12.2
영업이익률 (%)	2.2	-3.3 %pt	+0.3 %pt	1.7	+0.5 %pt
지배순이익률 (%)	0.9	-2.4 %pt	흑전	0.9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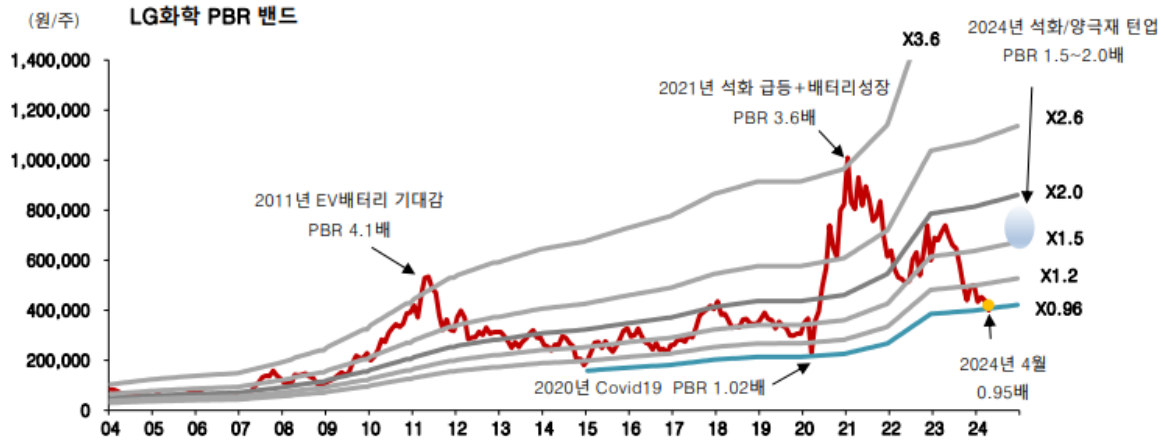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1A	2022A	2023P	2024F
매출액	425,993	518,649	548,422	518,359
영업이익	50,264	29,957	25,292	25,168
지배순이익	36,698	18,454	13,378	21,557
PER	16.4	23.7	25.5	13.1
PBR	3.0	1.5	1.1	0.9
EV/EBITDA	9.4	9.0	9.4	8.0
ROE	18.5	6.9	4.2	6.4

자료: 유안타증권

그림 1. LG 화학(주) 주가/순자산(PBR) 밴드 : 2024년 4월 PBR 0.95 배로 다시 바닥 터치(2024년 적정수준 1.5 ~ 2.0 배)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셀트리온

짐펜트라 너만 보인단 말이야

[출처] 키움증권 허혜민 애널리스트

1분기 시장 기대치 대체로 부합 전망

셀트리온의 1분기 매출액은 7,408억원(YoY +24%, QoQ +94%), 영업이익은 68억원(YoY -96%, QoQ -63%, OPM +1%)로 시장 컨센서스 매출액 7,284억원, 영업이익 88억원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시장은 '24.1Q 합병법인 영업적자를 예측).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으로 인한 재고 부담으로 1분기 원가율은 67%(YoY +11%p)가 전망되나, 이는 연말로 갈수록 매출증가에 따른 재고 부담 완화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인수가격배분(PPA) 상각 또한 1분기와 2분기 각각 약 700억원 반영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부터는 분기 약 70억원 가량으로 부담을 덜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짐펜트라가 미국 전역에 3/18일 출시되며, 사실상 1분기 짐펜트라의 매출액 반영된다고 보기는 힘들다(1Q24 56억원 추정). 다케다제약으로부터 인수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Primary Care 사업권 일부 매각하면서 올해 관련 매출액이 제외될 것으로 보이나 (연간 약 700억원), 지난 '23.4Q 조절된 공급 물량이 정상궤도로 회복하면서 실적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한다. 1분기 매출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램시마로 2,426억원이 예상된다 (셀트리온헬스케어 1Q23 램시마 매출액 2,367억원).

하반기 짐펜트라와 휴미라BS 실적, 신제품 유럽 승인 기대

올해 동사의 실적은 상저하고가 예상되는데, 1) 하반기 짐펜트라의 본격 처방이 시작되고, 2) 올해 중순 이후 휴미라 시밀러 PBM 침투가 예상되며, 3) 신제품 유럽 승인으로 소폭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전일(4/8일) 동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형 3대 PBM 중 한 곳과 짐펜트라 등재 계약을 완료하였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3분기부터 PBM 처방이 시작되면 짐펜트라의 매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짐펜트라 당사 추정 매출액 2,800억원 vs 회사 목표치 5,000억원+).

휴미라 시밀러의 경우, 바이오시밀러 전반의 낮은 침투율로(지난해 시밀러 침투 약 3%) 시장의 기대감이 낮은 편이나 올해 중순부터 오리지널 제품인 휴미라의 PBM 계약 종료로 순차 돌입하며 시밀러의 약진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벤트로는 상반기 졸레어 시밀러 유럽 승인, 하반기 스텔라라 시밀러 유럽 승인 등이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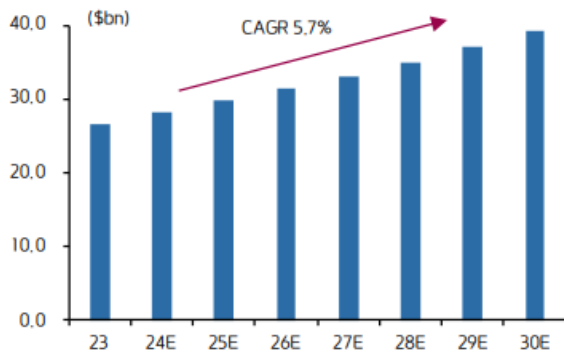
투자의견 유지, 목표주가 22만원 상향

투자지표

(십억 원)	2022	2023F	2024F	2025F
매출액	2,284.0	2,176.4	3,513.6	4,436.8
영업이익	647.2	651.5	603.1	1,405.2
EBITDA	873.6	897.3	903.6	1,671.1
세전이익	626.2	671.1	618.8	1,432.2
순이익	542.6	539.7	488.9	1,131.4
지배주주지분순이익	537.8	535.6	485.2	1,122.9
EPS(원)	3,677	3,639	2,225	5,150
증감률(% YoY)	-7.3	-1.0	-38.9	131.4
PER(배)	43.6	55.4	79.8	34.5
PBR(배)	5.67	2.61	2.23	2.11
EV/EBITDA(배)	26.2	34.3	44.0	23.5
영업이익률(%)	28.3	29.9	17.2	31.7
ROE(%)	13.4	5.1	2.8	6.3
순차입금비율(%)	4.2	6.6	5.0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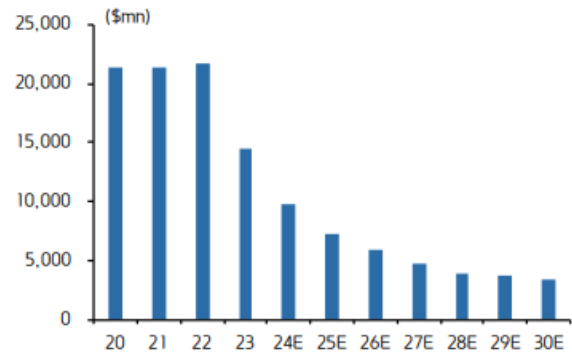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염증성장질환(IBD) 시장 규모 및 추정



자료: Fortune Business,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휴미라 매출 추이 및 추정



자료: Cortellis,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SK텔레콤

걱정 없는 모범생

[\[출처\] 유안타증권 이승웅 애널리스트](#)

1Q24 Preview: 시장 컨센서스 부합 전망

1Q24 연결 영업수익은 4.4조원(+1.2% YoY), 영업이익은 5,034억원(+1.7% YoY)으로 시장 컨센서스(4.4조원, 5,048억원)에 부합하는 영업실적이 예상된다. 유무선 통신에서의 안정적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반적인 비용 증가가 제한된 것으로 파악된다.

별도 영업수익은 3.2조원(+1.1% YoY), 영업이익은 4,271억원(+2.7% YoY)으로 전망한다. 5G가입자 성장과 로밍 매출액 성장이 지속된 것으로 파악된다. 5G 가입자수는 1,635만명(+67.5만명 QoQ)으로 예상된다. 성숙기 진입에 따라 순증 속도는 다소 둔화되나, 플래그십 단말기 출시가 2주 정도 앞당겨지면서 당초 예상보다는 높은 순증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SK브로드밴드 영업수익은 1.1조원(+4.2% YoY), 영업이익은 763억원(+0.3% YoY)으로 전망한다. 2nd 셋탑박스과 1인가구 중심의 IPTV가입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인터넷가입자는 6만명 순증하며 안정적 성장을 유지할 것이다. 데이터센터 가동률 상승과 클라우드에서의 신규수주 증가와 리커링 매출 확대에 엔터프라이즈 사업 역시 외형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65,000원 유지

24년 연결 영업수익은 17.8조원(+1.3% YoY), 영업이익은 1.8조원(+4.0% YoY)으로 전망한다. 5G 가입자 증가에 따른 MNO 시장에서의 지위 강화와 비용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익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신사업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도이치텔레콤, 이앤그룹, 싱텔그룹, 소프트뱅크 등과 AI JV를 연내 설립할 예정으로 Telco 특화 LLM을 통한 AI 글로벌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다. 에이닷 가입자수는 400만명에 근접한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에는 안드로이드 버전을 출시했다. 국내 안드로이드 기기 비중이 80%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에이닷의 양적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구독서비스 T우주 역시 유튜브 등을 바탕으로 견조한 증가 추세를 유지했으며, 상반기 중 OTT 제휴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돼 가입자 증가 추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동사에 대해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65,000원을 유지한다.

	1Q24E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컨센서스	컨센서스대비
매출액	4,425	1.2	-2.3	4,437	-0.3
영업이익	503	1.7	69.5	505	-0.3
세전계속사업이익	438	4.0	101.4	427	2.4
지배순이익	320	10.2	82.0	320	0.2
영업이익률 (%)	11.4	+0.1 %pt	+4.8 %pt	11.4	0
지배순이익률 (%)	7.2	+0.6 %pt	+3.3 %pt	7.2	0

자료: 유안타증권

계산 (12월)	2022A	2023A	2024F	2025F
매출액	17,305	17,609	17,840	18,147
영업이익	1,612	1,753	1,823	1,896
지배순이익	912	1,094	1,123	1,117
PER	12.9	9.6	9.9	10.0
PBR	1.0	0.9	0.9	0.9
EV/EBITDA	4.1	3.8	3.7	3.6
ROE	8.0	9.6	9.7	9.4

자료: 유안타증권



현대건설

1Q24 Preview : 탑라인에 주목

[\[출처\] IBK투자증권 조정현 애널리스트](#)

1Q24 Preview: 매출액, 영업이익 성장

현대건설의 2024년도 1분기 연결 매출액은 7.9조원(YoY +30.7%), 영업이익 2,199억원(YoY +26.8%)으로 추정한다. 시장 컨센서스인 영업이익 1,951억원 대비 +12.7% 상회한 수치이다. 매출액은 현대건설 주택부문, 플랜트 부문 모두 고르게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현대엔지니어링 해외(관계사 물량 및 기 수주분)건설 부문이 매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영업이익은 마진율의 큰 변동없이 탑라인 성장에 따른 이익 증가를 전망한다.

숨 고르기

현대건설 1분기 별도 주택 분양실적은 약 2,600세대를 공급하며, 연간 가이던스 20,541세대 대비 12.7%를 기록하였다. 1분기 분양 성과는 아쉽지만, ▶ 청약홈 개편으로 인한 한달간 분양 공백, ▶ 수도권 물량이 분양 가이던스의 82.8%임을 고려하였을 때, 올해 가이던스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상반기 해외 수주파이프라인으로는 파푸아뉴기니 LNG(10억 불, 플랜트), 사우디NEC(8억 불, 플랜트), NEOM Tunnel: Type-B(6억 불, 토목)등이 있다. 수주가 유력했던 사파니아 프로젝트는 발주처인 아람코 *MSC-12 정책으로 인해서 취소되었다. *MSC-12: 일일 원유 생산량 1,200만 배럴로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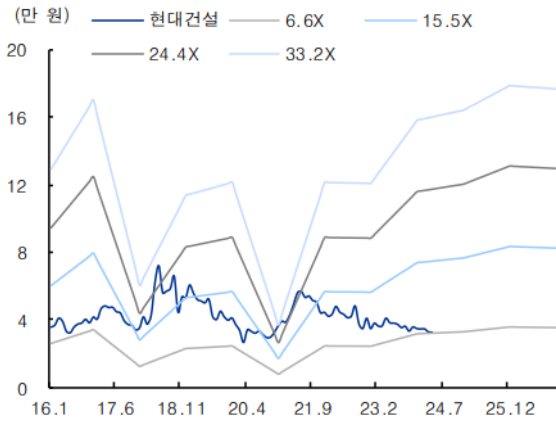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7,000원 유지

당사는 현대건설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47,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12M Fwd. BPS에 목표배수 0.6배(예상 ROE 7.7%)를 적용해 산출했다. 동사의 입주세대는 2023~2025년까지 각각 2.4만, 3.7만, 4.0만 세대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하반기로 갈수록 ▶ 분양 잔금 유입에 따른 현금성 자산 확보, ▶ 악성 주택현장 준공에 따른 이익률 개선을 기대한다.

(단위:십억원.배)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	21,239	29,651	32,224	30,928	30,310
영업이익	575	785	903	1,020	999
세전이익	754	940	979	1,139	1,129
지배주주순이익	409	536	622	762	755
EPS(원)	3,637	4,767	5,537	6,779	6,717
증가율(%)	-0.4	31.1	16.1	22.4	-0.9
영업이익률(%)	2.7	2.6	2.8	3.3	3.3
순이익률(%)	2.2	2.2	2.2	2.8	2.9
ROE(%)	5.5	6.8	7.4	8.4	7.8
PER	9.6	7.3	5.9	4.8	4.9
PBR	0.5	0.5	0.4	0.4	0.4
EV/EBITDA	4.3	4.2	2.4	1.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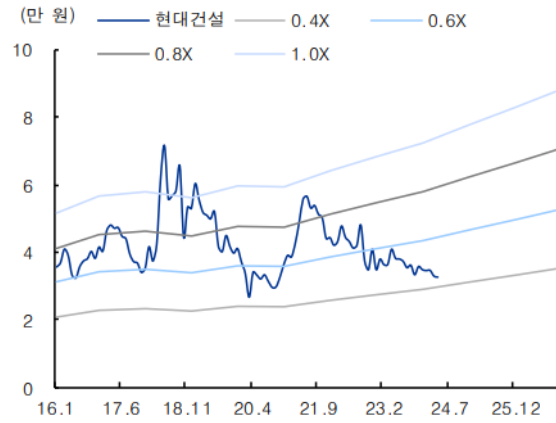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현대건설 PER 밴드 차트



자료: Quantwise, IBK투자증권

그림 2. 현대건설 PBR 밴드 차트



자료: Quantwise, IBK투자증권



DL이앤씨

1Q24 Preview : 숨 고르기

[출처] IBK투자증권 조정현 애널리스트

1Q24 Preview: 영업이익, 컨센서스 하회 추정

DL이앤씨의 2024년도 1분기 연결 매출액은 1.9조 원(YoY +4.0%), 영업이익은 889억 원(YoY -1.4%)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한다. 시장 컨센서스인 영업이익 1,040억원 보다 14.5% 하회한 수치이다. 주택부문 매출액은 2021, 2023년 저조했던 착공의 영향으로 -6.8% 하락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영업이익은 플랜트 부문의 매출 상승세 저조 영향으로 당초 기대치 대비 하회한 것으로 판단한다.

주택/플랜트 부문 숨 고르기

주택 부문은 ▶ 도급증액 성과 저조, ▶ 건설 원가 상승 영향으로 아쉬운 성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하지만, 하반기에 들어설수록 신규 착공 물량 증가로 인한 믹스 개선과 도급 증액 효과로 원가율 개선이 이어질 전망이다. 1분기 주택 연결 착공은 약 4,000 세대를 기록하며, 당초 연결 가이드런스 17,760세대 약 23%를 달성하였다.

플랜트 부문은 하반기에 진입할수록 러시아 프로젝트의 매출 기여도가 점차 높아지며, 전사 수익성 개선을 기대한다. 또한, 2024년 파이프라인으로는 사우디 인산암모늄(2Q24, 35억 불)이 예정되어 있기에, 대규모 수주소식을 기대해도 좋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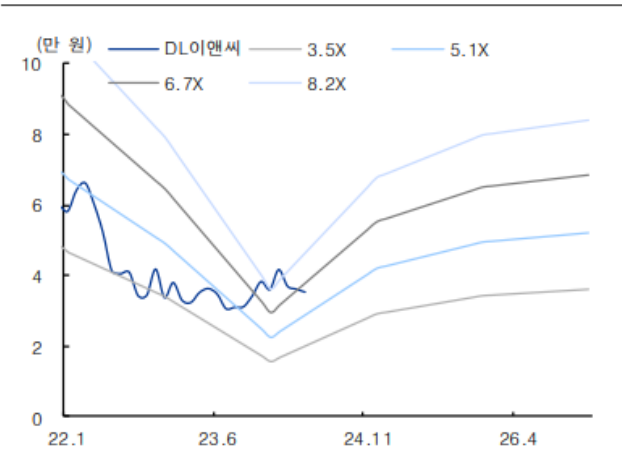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50,000원 유지

당사는 DL이앤씨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50,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12Fwd.BPS에 목표배수 0.7배(예상 ROE 7.0%)를 적용해 산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 주택부문의 원가율 개선, ▶ 플랜트 부문 매출 기여도 상승으로 증익이 기대된다. 현재 동사의 주가는 시장 컨센서스 기준 12M Fwd.P/E 4.04배, P/B 0.31배다.

(단위:십억원배)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	7,497	7,991	8,477	9,709	9,224
영업이익	497	331	496	511	648
세전이익	595	280	456	616	739
지배주주순이익	413	188	324	437	525
EPS(원)	9,627	4,377	7,558	10,189	12,230
증가율(%)	-29.0	-54.5	72.7	34.8	20.0
영업이익률(%)	6.6	4.1	5.9	5.3	7.0
순이익률(%)	5.8	2.5	4.0	4.7	5.9
ROE(%)	9.7	4.1	6.6	8.3	9.1
PER	3.5	8.2	4.7	3.5	2.9
PBR	0.3	0.3	0.3	0.3	0.3
EV/EBITDA	1.1	1.2	-0.7	1.6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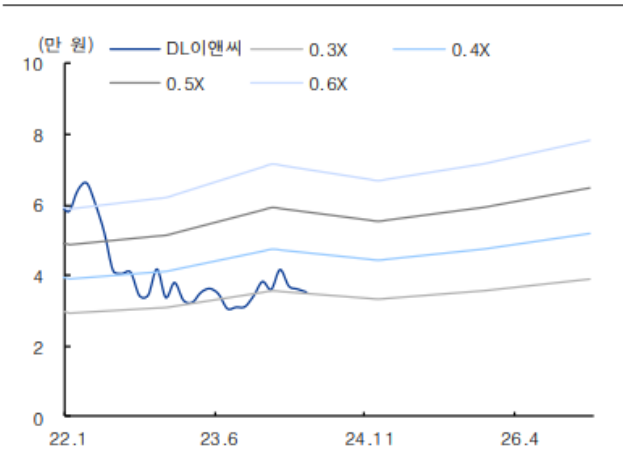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DL이앤씨 PER 밴드차트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그림 2. DL이앤씨 PBR 밴드차트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LG에너지솔루션

1Q24 Review : 어닝쇼크 기록

[\[출처\] 유안타증권 이안나 애널리스트](#)

1Q24 Review: 어닝 쇼크 기록

동사는 2024년 1분기 매출액 6.1조원(-23% qoq, -30% yoy), 영업이익 1,573억원(-53% qoq, -75% yoy)로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실적 기록. Tax Credit 1,889억원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316억원으로 적자 기록.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소형 전지는 원통형 전지의 큰 폭의 ASP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요 고객사의 restocking 수요 증가로 4분기 대비 약 15%의 외형성장을 기록. 다만, IT 파워치의 수요 둔화로 약 1%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임. 자동차 전지는 폴란드 공장의 저조한 가동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미향 수요도 감소하여 매출액은 4분기 대비 약 25% 감소, 영업이익률은 0.3%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보임. ESS 또한 출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적자를 기록

쉽지 않은 상반기, 다만, 하반기가 기대되는 이유

동사는 2024년 2분기, 소형전지보다는 자동차 전지 수요 증가가 기대. 1분기에는 소형전지ASP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restocking 수요가 증가했다면, 2분기에는 EV 부문 ASP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수요 증가가 기대. 다만, 상반기까지는 ASP 하락 지속 및 수요 둔화, 큰 고정비 등으로 외형 및 이익 증가 폭은 제한적일 것. 그러나 하반기 낮아진 ASP를 바탕으로 전 사업부문 restocking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또한 유럽 테슬라 모델Y Facelift 버전인 '주니퍼' 출시로 인한 수요 확대, 46시리즈 양산 시작 및 관련 수주 모멘텀 등이 기대되는 상황

동사에 대한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유지

동사에 대한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531,000원을 유지. 동사는 2024년 유럽, 미국 시장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음. 그러나 하반기 실적 반등뿐 아니라 4680 관련 수주 모멘텀 등이 기대

Quarterly earning Forecasts (십억원, %)

	1Q24P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컨센서스	컨센서스대비
매출액	6,129	-29.9	-23.4	6,423	-4.6
영업이익	157	-75.2	-53.5	114	38.2
세전계속사업이익	99	-86.0	-65.5	195	-49.2
지배순이익	60	-87.9	흑전	26	129.7
영업이익률 (%)	2.6	-4.6 %pt	-1.6 %pt	1.8	+0.8 %pt
지배순이익률 (%)	1.0	-4.7 %pt	흑전	0.4	+0.6 %pt

자료: 유안타증권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십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2A	2023A	2024F	2025F
매출액	25,599	33,745	34,021	45,115
영업이익	1,214	2,163	2,530	4,178
지배순이익	767	1,237	1,211	2,016
PER	138.5	97.9	72.7	43.6
PBR	5.7	6.0	4.1	3.8
EV/EBITDA	36.4	34.8	23.5	17.4
ROE	5.7	6.4	5.8	9.0

자료: 유안타증권



캠트로닉스

우리 기판이 보여줄 강력한 성장 모멘텀

[출처] [하나투자증권 조정현 애널리스트](#)

유리 기판 TGV 공정 진입,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국면

캠트로닉스는 대면적 디스플레이 유리 원장 식각 기술을 기반으로, 유리 기판의 핵심 공정인 TGV 공정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TGV(Through Glass Via)는 유리 기판에 홀을 뚫는 건식 공정(레이저)과 홀 내부의 파티클 및 평탄도(TTV)를 향상시키는 습식 식각 공정으로 구성된 유리 기판 제조의 핵심 공정이다. 동사는 디스플레이 유리 원장 식각 원천기술을 보유해 글로벌 반도체 OSAT 업체의 TGV 공정 프로젝트에 파트너사로 참여하며 TGV 공정 기술력을 키워왔다. 특히, 고객사의 유리 기판 파일럿 라인 증설이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만큼 TGV 사업을 통한 동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반도체 EUV 핵심 소재 PGMEA 쉘 테스트 기대감 고조

PGMEA는 반도체 EUV 공정에 활용되는 포토레지스트(PR)의 70~8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로, 캠트로닉스는 5N 초고순도 개발 및 국산화에 성공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인만큼 국산화 의미가 크다. 작년 11월 172억원 규모의 증설에 따라 연내 약 2.5만톤의 생산 능력을 갖출 것으로 판단된다. PGMEA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약 1조원 수준으로, 국내수요는 약 3천억원으로 추정된다. 동사의 풀캐파 기준 약 600억원의 매출 증대가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 주요 고객사 쉘 테스트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반도체 소재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큰 시점이다. 이 외에도 동사는 PGME, NMEA 등 반도체 소재 R&D를 지속하고 있어 과거 소재 정제 및 유통 사업에서 자체 소재 개발 업체로 변모하고 있다.

2024년 매출액 6,197억원, 영업이익 336억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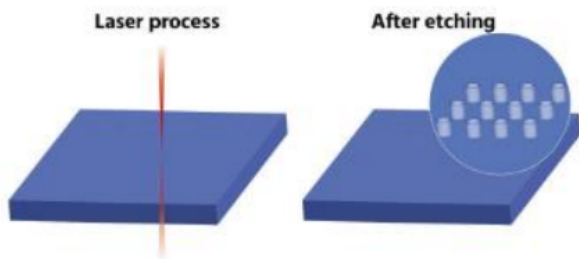
2024년 실적은 매출액 6,197억원(+14.2%, YoY), 영업이익 336억원(+75.6%, YoY)으로 전망한다. 사업부별 매출은 전자사업 3,044억원(+0.6%, YoY), 화학사업 3,153억원(+31.4%, YoY)으로 전망한다. 작년 4분기부터 고객사 Rigid OLED 채택 확대에 따라 가동률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전자사업 ODM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이뤄졌다. 1분기부터는 중화권 업체의 Rigid OLED 패널 수요 증가로 인한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1) 유리 기판 TGV 공정 진입, 2) 반도체 EUV 소재 PGMEA 쉘 테스트 완료, 3) 8세대 Hybrid OLED 식각 라인 준공 등 다수의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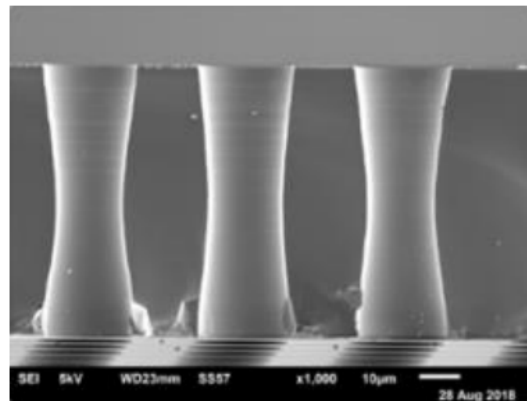
투자지표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530	563	621	542
영업이익	22	39	22	19
세전이익	20	34	8	(6)
순이익	17	29	6	(9)
EPS	1,164	1,918	404	(568)
증감율	0.3	64.8	(78.9)	적전
PER	23.8	15.0	32.8	(42.6)
PBR	3.4	2.9	1.3	2.2
EV/EBITDA	11.8	9.0	7.2	12.4
ROE	15.0	20.3	4.2	(5.2)
BPS	8,052	9,865	10,098	10,890
DPS	250	300	200	100

도표 1. TGV 공정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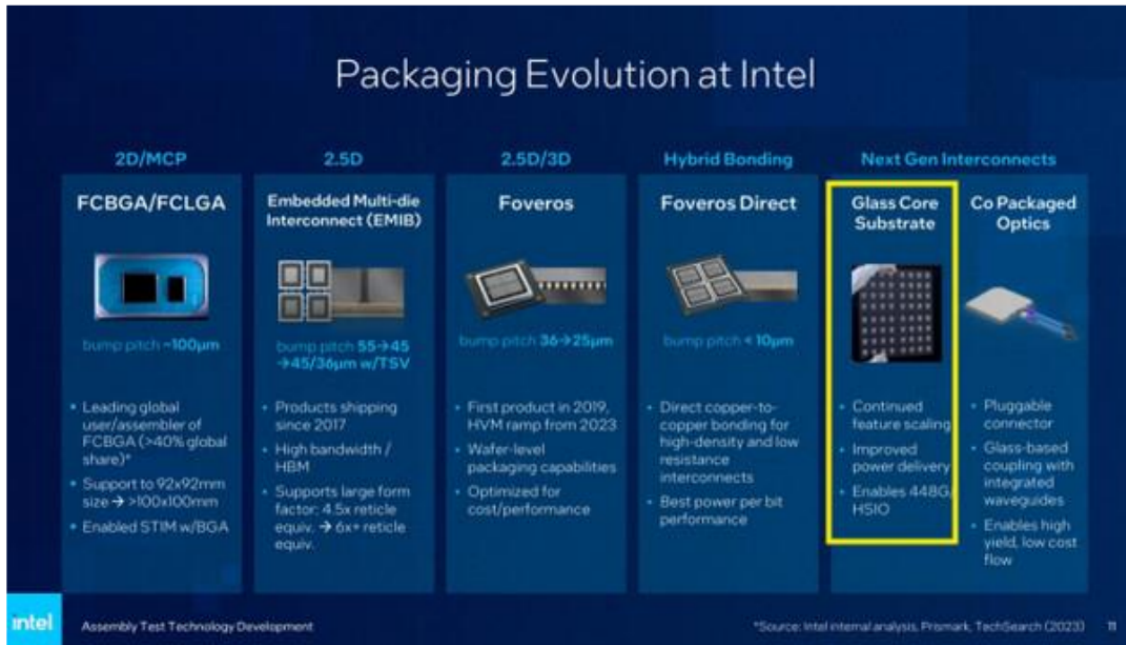
자료: RENA Technology, 하나증권

도표 2. 레이저 및 습식 식각을 통한 TGV



자료: LPKF, 하나증권

도표 3. 차세대 유리 기판



자료: 인텔, 하나증권



